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남대학교는
지역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것입니다.

HANNAM DREAM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5 Winter Vol. 42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5 Winter ● Vol. 42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상징탑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승철
편집인 장수익
글·사진 고상범, 김민영, 차수민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STORY 1
글로벌 한남

- 04 세계로 뻗어가는 한남대학교,
활발한 국제교류 눈길
- 06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시대,
체계적 다양한 프로그램
- 08 한학진 교수
창업 기업 (주)마이스프로,
글로벌 무대로 도약
- 10 로컬기업 글로벌화 지원하는
실전형 글로벌 교육,
한남디자인 팩토리

STORY 2
한남대 사람들

- 12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전사업대 유일 최고등급(S) 획득
- 14 국내 대학 최초 공군 수송기
성능개선 사업 감항인증 수주
- 16 한남대 축구부 대학축구연맹전 4연패
- 17 한남대 탁구부 전국체전서 금빛 메달
- 18 한남대기술지주사
‘지투지바이오’ 투자회수 성공
- 19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5.06대 1
- 20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5개 영역 30개 준거 모두 ‘통과(All Pass)’
- 21 한남대에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 구축,
AI 수요 대응 본격화
- 22 2025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선정

STORY 3
한남대 소식

- 24 정혜신 명예교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26 20년간 이어온 아버지의 사랑,
‘故김희진 장학금’ 20명에게 전달
- 28 제31회 한남인문문화상에
한국외향선교회 선정
- 29 산학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학생,
후배 위해 수상상금 ‘기탁’
- 30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밝힌
‘사회봉사 인성센터’



세계로 뻗어가는 한남대학교, 활발한 국제교류 눈길

일본 삿포로가쿠인대학, 호쿠세이가쿠엔 대학 협약

이승철 총장은 지난 7월 일본 홋카이도 에베츠시의 삿포로가쿠인대학과 삿포로시에 위치한 호쿠세이가쿠엔 대학을 방문했다.

삿포로가쿠인대학은 지난 2011년 한남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히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3주간 진행되는 한남대 한국어문화연수(KLCP)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총장의 방문으로 양 대학의 오랜 협력을 재확인하고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호쿠세이가쿠엔대학은 올해 새롭게 한남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했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학이자 양 대학 모두 장로교계 ACUCA(아시아기독교대학협의회) 회원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쿠세이가쿠엔대학은 한남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문화연수(KLCP)에 학생 14명을 파견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상)삿포로가쿠인대학 (하)일본 호쿠세이가쿠엔대학 업무협약

미국 Valdosta State University 협약

지난 10월에는 한남대와 미국 Valdosta State University(이하 VSU)가 양교 학생·교수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VSU 경영대학 학장(Dr. Guclu Atinc), 경영학과 교수(Byeonghwa Park, Ph.D)는 한남대를 방문해 이승철 총장을 예방했으며,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편집자 주〉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한남대는 일찍이 글로벌 교육을 시작해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어가 강한 대학’으로 통한다. 2025년 현재 세계 45개국, 278개 자매대학과 해외 교류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 교류를 통해 학생 교류, 교수 및 직원 교류, 공동연구 등 활발한 ‘글로벌화’에 나서고 있다. 한남대는 2025년 해외 대학들과 유난히 활발한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 19 이후 잠시 주춤했던 국제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이승철 총장이 내걸었던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비전 실천을 위한 행보다.

이번 협약으로 양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1년 단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수진 교류 등 학문적 협력을 추진한다. 양교는 창업과 혁신 교육에 높은 관심을 공유했다. 한남대의 캠퍼스혁신파크, 창업보육센터 등과 조지아주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추진 등 글로벌 취업 기회 확대 협력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경영대학은 세계경영대학협회가 인증하는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시 경제금융대학교 공동연구 진행

지난 11월 6일 한남대와 베트남 호치민시 경제금융대학교가 위성 및 인공지능 기반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경제금융대학교 응우옌 타인지앙(Ph.D Nguyen Thanh Giang) 총장이 한남대를 방문해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두 대학은 학술 및 교육교류, 학생교류 등을 실천할 예정이며,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재난 예측과 스마트 재난 안전 플랫폼 구축 등 첨단 분야 연구 및 인재양성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안휘과학기술대학교, 창저우공정직업기술대학교 중외합작판 프로그램 운영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11월 중국 자매대학들을 방문해 신규 프로그램 운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안휘성에 위치한 안휘과학기술대학교(安徽科技学院)를 방문했으며, 중국 교육부가 인증해 운영 중인 ‘2+2(기계공학과)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한남대는 지난 2010년 안휘과학기술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이후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생 교류, 강사 파견, 연수생 입학, 한남대 편입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남대 교수가 온라인 강의는 물론 직접 중국에 파견해 현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학생들이 해마다 4~5명 이상 편입해 학업을 진행 중이다.

장수성의 창저우공정직업기술대학교(常州工程职业技术学院)도 방문해 신규 3+1(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했다.



한남대 글로벌협력실 관계자는 “한남대는 단순한 업무협약체결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학생교류와 교수 교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업무협약에 따른 학생교류와 학과교류 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글로벌 한남의 이미지를 굳건히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시대, 체계적 다양한 프로그램

“

한남대학교 교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마주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됐다.
유학생 2,000명 시대를 맞아
한남대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

국내 대학들이 코로나19로 해외 교류가 주춤했던 시기에 한남대는 거꾸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했다. 온라인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 체계적인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유학생 급증의 요인으로 손꼽힌다.

외국인 유학생들 상당수가 국내 대학에 어학연수를 오면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한남대는 어학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설명회, 문화탐방, 멘토제, 취업연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 진학률을 높이고 대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

한남대는 지난해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본교의 유학생 유치 활동 경쟁력과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한남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와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정착 및 취업을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지원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 연계성, 기대효과, 성과 확산 가능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시행대학으로 선정됐다. 한남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주춤할 때 과감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오히려 증가했다. 2020년 당시 668명에 그치던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 1,274명, 2024년 1,496명, 2025년 2,090명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한국어 연수생을 기준으로 대전·충청권 대학 가운데 한남대는 1위이며, 전국권 7위 규모다.



2025년 한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정규과정 개강식



체계적인 유학시스템 보유

한남대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의 원인은 체계적인 유학 지원 시스템이 손꼽힌다. 각종 취업진학, 창업 교육은 물론 한국어 연구 학생들의 학부 진학을 위한 전공 설명회, 전담교수제 운영을 통해 학생 상담 등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적응 지원과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어교육원은 학부 진학을 앞둔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학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과별 교수와 선배들이 학과를 설명하고 유학생들에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이미 학부에 진학한 베트남 유학생 선배가 자신의 학과를 직접 설명해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으며, 이날 설명회에만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남대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입문 프로그램도 개최했다. 유학생 창업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한국 창업 지원제도, 유학생 창업절차, 실전 사례 등을 소개하며 유학생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남대는 1:1 창업 상담과 지역 창업 행사 참여연계 등을 통해 유학생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한남대는 유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수업은 물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교환학생들에게 한남대 재학생들과 1대1 멘토 매칭을 통해 친근한 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학생들의 빠른 학업 적응을 돕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가위 대축제'도 열었다. 유학생들은 한복 체험, 전통놀이, K-FOOD체험 등 유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어 스피치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기회가 됐다. 특별 무대로는 국악밴드 '소리맵시'의 대표인 이선명 소리꾼을 초청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 공연을 진행했다.

출입국관리법 안내를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을 초청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출입국관리법 초청 특강'도 진행했다.

(상) 한가위대축제 한복체험
(하) 외국인유학생 프로그램



한학진 교수 창업 기업 (주)마이스프로, 글로벌 무대로 도약



“
해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 및 생활지원, 재교육에서
취업·창업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

한남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과 한학진 교수가
창업한 (주)마이스프로(<https://micepro-edu.com>)가
국내외 협력 기반을 확장하며 글로벌 교육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주)마이스프로는 지난 2019년 교원 창업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이벤트와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였으나
창업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행사와
이벤트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사업이 위축됐다.

하지만 한 교수에게 위기는 기회였다. 비대면이 대세였던 만큼 한 교수는 재빠르게
온라인을 활용한 이벤트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을 주관하며 기업 기반을 다졌다.
코로나 종료 이후 여행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예견으로 여행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했다.
한 교수는 전문 경영을 맡을 김형석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했고, 유학생 관리 사업에
오랜 노하우가 있었던 김 대표의 역량이 한 교수의 사업 기반과 빠르게 융합됐다.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유학생 유치 이후 유학생들의 사후관리, 대학진학,
취업, 생활지원 등의 사각지대를 발견한 (주)마이스프로는 사무실 내에 'FM글로벌
에듀케어센터'를 설립했다.



(상) 한학진 교수(오른쪽)와 김형석 공동대표
(하) 창업기업 (주)마이스프로 한학진 교수



이곳은 유학생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생활정보
(법률, 부동산, 보건, 아르바이트) 제공을 비롯해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교과 활동 및 이벤트 후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마이스프로는 최근 베트남 박닌 지역에 한국어교육센터를 개소했다.
한남대 졸업생이 설립한 FAGOSA, FAMi 등 해외 기관과 협업체 우수
유학생들 유치는 물론 유학생들의 재교육과 현지 취업 알선, 창업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한다. 교원창업기업이다 보니 마케팅이나
홍보가 부족해 초반에는 사업 정착에 고충이 있었다.

각종 마이스 행사, 이벤트, 국제 유학생 프로그램 등 해외 에듀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지만, 교내 구성원들조차 학교
내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인식이 적었다. 하지만 한 교수는 타 지역의 관광서,
대학,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영하면서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 교수는 “(주)마이스프로는 동문 기업이기도 하다며, 학교 차원에서 구성원
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행사유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원 창업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실전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교육
봉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으로 키워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로컬기업 글로벌화 지원하는 실전형 글로벌 교육, 한남디자인 팩토리

싱가포르 SIT
라트비아 RTU
공동 교육 과정 운영

한남디자인팩토리가
해외대학들과 손잡고
국내 로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고있다.

디자인팩토리는
세계적인 명문대인 핀란드
알토대학 등 세계 28개국 40개의
글로벌 대학들이 가입한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남대는 디자인팩토리를
네이버, 성심당, 수자원공사 등의
기업들과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협업하고 해외 대학들과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들을 개발해 내고 있으며,
2019년부터 지금까지 70여 건의
특허출원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대학과 손잡고 국내 수요와
다른 해외 사용자들의 수요 공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남대는 지난 8월 싱가포르의 SIT
(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디자인팩토리, 라트비아의 RTU
(Riga Technical University)
디자인팩토리와 손잡고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한남대에서 진행한
공동 교육과정에서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입주기업인
메타뱅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제 제시 기업으로 참여했으며,
3개국 디자인팩토리 교원들이
51명의 학생들에게 팀티칭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프로젝트 주제는
'피부 및 기후 환경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메이크업
추천 콘텐츠 시스템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참여기업들을 위해 3개국 학생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국내 수요와 상이한 해외 사용자들의
수요 및 특징점을 공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여름 프로그램은
지난 겨울에 진행된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한남대가 위치한 대전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지원을 의뢰받게 됐다.

이번 교과목 운영을 위해
3개국 디자인팩토리의 교원과 직원은
커리큘럼을 공동 설계하고,
기업 섭외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나눠왔다.

공동 교육과정은 1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생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3개국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유급 센터장은
"3개국 학생들이 하나의 팀으로
섞여서 함께 웃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이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 보람과
가치를 크게 느낀다"라며
"지속적인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글로벌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대학들과
손잡고 국내 로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도전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된 1단계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이해, 기업 방문,
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해 문제를 파악했으며,
디자인씽킹 방법론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해커톤 형태로 진행했다.
첨단소재·나노융합 혁신융합대학사업
(COSS)의 지원을 통해 진행된
2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3D 프린팅 모델링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했다.

한남대 디자인팩토리는
2025년 1월에는 싱가포르
SIT 디자인팩토리로 학생을 파견해
싱가포르 학생들과 함께
Asian Civilization Museum의
기업 프로젝트형 교과목을 운영했으며,
그해 2월에는 라트비아
RTU 디자인팩토리에 학생을 파견해
라트비아 학생들과 함께
Rīgas namu pārvaldnieks의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한남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교육혁신 성과와 자체 성과관리 분야에서 각각 S등급, A등급을 획득하며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교육혁신 성과는 S등급, 자체 성과관리 항목은 A등급이 최고 등급인 만큼 가장 우수한 성적표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한남대는 교육혁신 성과, 성과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S등급을 획득했다.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전사립대 유일 최고등급(S) 획득

교육혁신 분야, 최고 등급의 비결은?

한남대는 디자인팩토리를 통해 DFGN(Design Factory Global Network) 기반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정의 고도화, 문제해결 중심 실천교육, 다학제 연계, 글로벌 공동교육 플랫폼 등 선도적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한 성과가 우수 사례로 손꼽혔다.

디자인팩토리는 핀란드 알토대학에서 디자인씽킹방법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플랫폼이다. 한남대는 2019년 국내에서 2번째, 세계에서 27번째로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해 이러한 교육 체계를 한남대에 도입했다.

디자인팩토리는 다양한 관점의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전공 간 관점을 융합하고 국가 간 관점 융합을 통해 기업들이 제시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낸다. 디자인팩토리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된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팩토리 수업

한남대는 전공자유선택제 모집인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한데 이어 2026학년도부터 단대별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25% 이상 확충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신입생들이 입학 후 1년간 대학 적응, 전공과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1년 동안 교양필수 수업과 계열기초수업을 듣고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으며, 계열별 자유전공학부는 관련 학과 영역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남대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단과대학과 탈메이지 교양 융합대학을 컨트롤타워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멘토 교수를 정해 학생들 개별상담과 진로지도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한남대는 전공별 이수 로드맵을 개발해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하고 맞춤형 진로 탐색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멘토 교수제 매뉴얼 개발, AI 기반 진로 역량 시스템 구축, 스마트 강의실,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등 에듀테크 기반 교수 환경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자체성과 관리 우수 등급 비법은?

자체 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교육혁신 활동 지수를 교과와 비교과 영역으로 나눠 대학의 구조적 변화 및 만족도를 측정했고, 각

세부 하위 지표 구성도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조직 및 기구 구성, 체계적인 운영을 해왔다. 또 성과관리 전담조직인 IR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평가다.

한남대는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재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학생이 주체가 돼 교육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생 역할 부문에서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S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사업비 외에 인센티브 금액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자율적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혁신 등 대학 전반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오고 노력해 오고 있다”라며 “평가를 계기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세계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인재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 최초 공군 수송기 성능개선 사업 감항인증 수주

한남대 무인기융합연구센터가
국내 대학 최초로
'수송기용 지형인식경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의
(terrain awareness and warning system)
감항인증 사업을 공식 수주했다.

이번 수주는 대학의 학술적 연구 역량에 실무형 인증·
시험 능력을 결합해 항공안전 기술을 상용·군사 분야
에 적용하는 선도적 사례라는 평가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주한 공군 '수송기 탑재형 지형
인식경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은 한남대와 헬리코리
아가 컨소시엄으로 수주했으며, 감항인증 단일 과제
만 3억 원 규모다.

사업명은 '수송기 탑재형 지형인식경보 체계 성능
개선 사업의 감항인증 및 통합시험 지원'이며, 무인
기융합센터는 해당 체계의 감항인증과 시험·문서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기준(형
식증명 기준) 분석, 인증 계획 작성, 시험 프로그램
수립, 시험 데이터 수집·분석, 규제 당국 제출용 증
빙 문서 작성 및 항공기 통합 시험을 지원하게 된다.

감항인증은 항공기 또는 항공기 구성품·시스템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금까지 주로 민간
대행업체가 수행해 왔으나, 박사급 전문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 기관이 감항인증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한남대
무인기융합연구센터장이
감항인증 위한 회의를
하고있다.

“
한남대
무인기융합연구센터가
보유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센서융합,
시험평가 분야의
독보적 역량과
객관적 공정성을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구 기관이
인정한 결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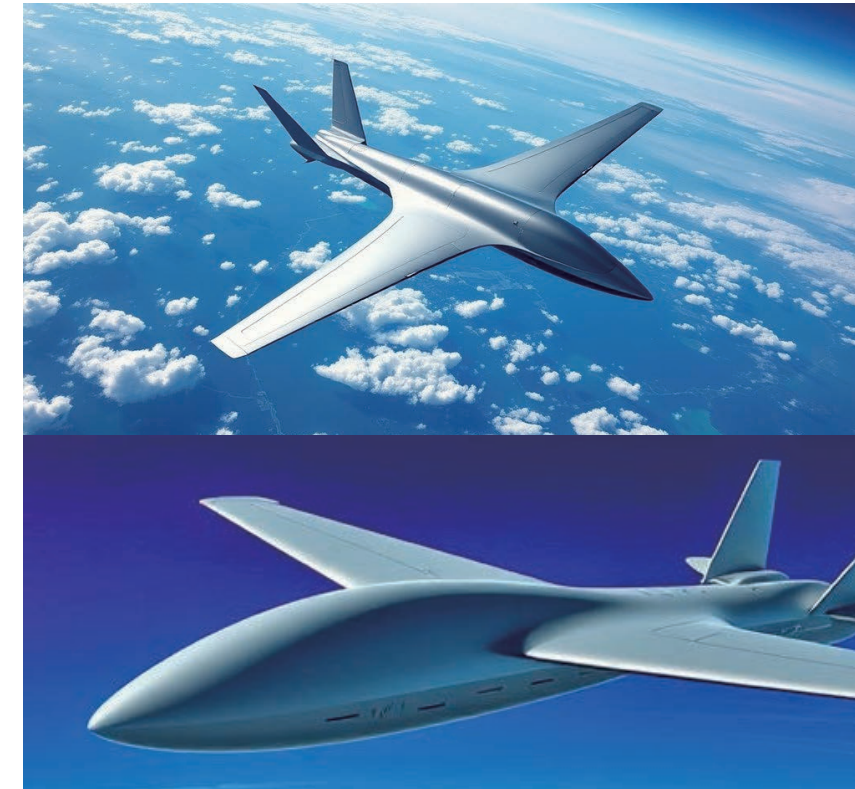
한남대 무인기융합연구센터는 인증
기준(형식증명 기준) 분석, 인증 계획
(Certification Plan) 작성, 시험 프로
그램 수립, 시험데이터 수집·분석, 규
제 증빙 문서(Compliance Report)
작성, 항공기 통합 시험 등 감항인증
을 담당하며, 헬리코리아는 성능개선
을 담당하게 된다.

한남대는 인근 항공사·제작사·시험기
관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설계 검
증과 소프트웨어 검증, 환경·구조시험
등 감항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충족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
련 시험 인프라와 국제 규격에 준하는
시험 환경을 확보해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항공안전성과 관련 사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무인기융합연구
센터는 중소 항공기업과 협력해 국내 개발 체계의 인증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관련 인력 양성을 통한 유무
인기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남대 무인기융합연구센터의 이번 수주로 중소 항공기업과 협력해 국내 개발
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시험과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국내
항공 안전성 사업에도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방위·민간 항공 양측의 인증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인증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인증 범위와 절차를 조율하고 있으며,
투명한 문서화와 엄격한 시험절차를 통해 감항 승인 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올해 말까지 초기 인증계획과 시험 일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상·비행시험을 통해 인증 자료를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 측은 "이번 사업 성공을 계기로 대학이 주도하는 기술인증 프로젝트 모델을
확산시켜,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여 국가 항공 안전의 표준을 제시하고 안전 기반의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남대 이준원 무인기융합연구센터장은 "대학이 항공감항 분야의 실무적 인증
사업을 수주한 것은 우리 센터가 보유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센서융합·시험평가의
독보적인 역량과 공정성을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과 연구진이 실무 수준의 인증 프로세스와 고난도 시험 경험을 축적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대 축구부 대학축구연맹전 4연패

한남대 축구부,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대회 사상 첫 4연패 위업

한남대학교 축구부가 '2025 水려한 합천 제20회 1,2학년대학축구연맹전' 죽죽장군기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2022년부터 대회 4연속 정상을 지킨 대학 축구 강호의 위업이다.

지난 8월 30일 한남대는 경남 합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죽죽장군기 결승전에서 탄탄한 수비를 앞세운 호남대를 맞아 후반 추가시간에 이형주 선수의 측면 어시스트와 조우령 선수의 마무리로 소중한 선제 결승 골을 터뜨려 1대 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남대 구성원들과 서포터즈들은 폭염 속에도 합천을 찾아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한남대는 우승까지 여정이 쉽지는 않았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제주관광대에 1-4로 패하며 일격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패배를 본보기로 심기일전해 선수들과 지도자가 하나 돼 우승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한남대는 2023년 5개 전국대회에서 대학 축구 역사상 최초로 4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우승과 추계대회까지 제패했으나 이후로 유독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1,2학년대학축구연맹전 우승으로 그 동안의 기우를 털어냈다.

한남대는 축구부의 성과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도 개최했다. 이승철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선수단이 참석해 축구부의 선전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했으며, 축구부 박규선 감독과 선수들은 이승철 총장에게 우승컵을 전달했다. 이 총장은 학교 이름을 빛낸 공로를 치하하며 축하금을 전달했다.

박규선 감독은 "1년 동안 우승을 간절히 갈망했다. 좋지 않은 성적이라도 결국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한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올해 남아있는 U리그, 전국체전, 왕중왕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과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총장은 "우리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에 깊이 감사한다"며 "특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드라마 같은 결승골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롭다. 앞으로도 한남대 축구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축구부 우승 축하행사
- 2·3. 축구부 우승 사진
4. 박규선 감독에게 이승철 총장이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남대 탁구부 전국체전서 금빛 메달

한남대학교 탁구부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대전광역시 대표로 참여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한남대 탁구부 이은주 선수가 여자 대학부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이호열 선수와 참가한 대학부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올랐다.



이은주 선수는 지난 7월 2025 라인-루트 세계대학경기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의 실력자다.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지난 4월 선발전을 치렀으며 여자대학부 개인단식 1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 이은주 선수 경기장면
2. 메달을 획득한 이은주 선수
3. 메달을 획득한 이호열 선수
4. 한남대 탁구부 혼합복식 우승팀



남자대학부로 출전한 이호열 선수는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전광역시 대표로 참가한 이은주 선수는 충남 대표 공주대 정민희를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우승자 타이틀을 방어했다.

이호열 선수와 호흡을 맞춘 이은주 복식 조는 경남 대표로 출전한 창원대 김시우-정세라 조를 결승전에서 3대 1로 누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은주 선주와 이호열 선수의 활약으로 대전광역시 전국체전 탁구 경기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한남대기술지주사 ‘지투지바이오’ 투자회수 성공



(주)지투지바이오 이미지 컷

한남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대표이사 지양훈)는
(주)지투지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

한남대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020년 ‘한남기술지주
투자조합 3호’를 조성해 ‘지투지바이오’에 투자했
으며 지난 8월 코스닥 상장 이후 5년 6개월만에
투자 원금의 5배를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투지바이오’는 2017년 3월 한남대 대덕밸리캠
퍼스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했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한남대
창업보육센터의 전문 보육과 기술지주의 투자는
창업 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지투지바이오’는 기존 주사제가 투여 주기가 짧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약물의 체내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목을 받았다. 기존 비만치료제가 주 1회 또는
월 1회 투여가 필요하다면 지투지바이오의 기술
력이 결합하면 투여 간격을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환자의 복약 편의성은 물론 의료비 절감 효

과도 기대되면서 의료계에서 주목받는 기술로 손꼽
히고 있다.

한남대기술지주회사의 투자는 대학의 창업 지원 인프
라와 기술지주의 투자 역량이 우수기업의 성장을
촉진한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한남대는 이번
투자 회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유망 창업
기업 발굴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에 투자
할 계획이다.

한남대기술지주 지양훈 대표는 “앞으로도 유망한
기술 창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후속지원을 강화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경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5.06대 1

“
한남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이
5.06대 1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

한남대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2,573명(정원 내) 모집에 13,019명이 지원해
5.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시모집 결과(정원 내) 4.35:1에 비해
0.71이 상승한 수치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일반전형의 간호학과로 2명 모집인원 대비
35명이 지원해 17.5대1을 기록했다.
이어 일반전형 역사교육과 일반전형 경찰학과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비교적 높지 않지만
한남대의 최종 등록률은 지역 최고 수준이다.
3년 연속 99.9%의 등록률을 보이는 등
지역의 대표 사립대로 손꼽히고 있다.

“
한남대는 입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응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
풍성한 장학 혜택을 부여한다.
”

성적우수장학생
(학생부 교과 진리·자유·봉사 장학금 대상자)으로
선발되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학기당 도서비(70만 원 ~ 200만 원)를 지원한다.
최초 합격자(정원 내·외)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 첫 학기 등록 금액의 30%를 선 감면하는 등
파격적이고 다양한 장학 혜택을 주고 있다.

순 번	학과	전형	모집 인원	지원 자수	경쟁률
1	간호학과	일반전형	2	35	17.50:1
2	역사교육과	일반전형	9	152	16.89:1
3	경찰학과	일반전형	15	197	13.13:1
4	건축학과(5년제)	한남인재Ⅱ	3	37	12.33:1
5	사회복지학과	일반전형	18	217	12.06:1

한남대학교 수시모집 경쟁률 상위학과

“
한남대는 69년의 역사 속에서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선정,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DFGN) 가입,
11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등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며
결실을 맺고 있다.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5개 영역 30개 준거 모두 ‘통과(All Pass)’

— 대학기관평가인증 3년차 모니터링 평가 —

한남대학교가 지난 2022년 획득한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3년 차 모니터링 평가에서 5개 영역 30개 준거를 모두 통과(All pass)해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한남대는 지난 7월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3년 차 모니터링을 했으며, 한남대는 기존 평가 준거를 전 영역에서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PASS’ 통보를 받았다.



한남대는 지난 2022년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으며, 한남대는 3회 연속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통과한 바 있다. 올해는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무엇보다 전 영역에서 한 항목도 누락 없이 높은 평가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한남대는 ▲ 대학 이념 및 경영(재정확보, 발전계획, 재정집행 등)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교육과정, 학사관리, 수업 등) ▲ 교원 및 직원(교원 확보, 처우 및 복지, 직원 복지 등) ▲ 학생 지원 및 시설(장학제도, 교육시설, 기숙사 등) ▲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연구 성과, 교육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등 5개 영역 30개 평가 준거를 전 영역에서 통과했다.

본 평가 당시 통과했으나 다소 미흡한 수치로 개선조치 실적 판정을 받은 평가 준거(교육과정 체계, 교원 처우 및 복지,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기숙사 및 학생 복지) 4개 분야 모두 통과했으며, 본 평가 당시보다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기관평가 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최소한의 기본 요건과 특성을 갖추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제시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남대는 3주기 평가 인증을 통과 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인증 평가대학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예정부지

또 GPU 운영·성능 검증·연산 지원 등 전담하는 ‘GPU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 대전 지역 대학·출연연·스타트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역 AI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남대는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와 연계해 GPU 기반 AI 교육·실증 환경을 갖춘 산학연 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AI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공동 연구 개발(R&D)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남대에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 구축, AI 수요 대응 본격화

한남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고성능 GPU 기반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데이터센터는 국내 AI 핵심 엔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 한남대캠퍼스 혁신파크 미디어룸에서 한남대를 비롯한 대전시,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KT, BKB에너지(주), (주)엠아르오디펜스와 ‘한남대 AX 클러스터 및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장을 비롯해 이승철 한남대 총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성제현 KT 강북·강원법인고객본부장, 정시우 BKB에너지 회장, 박준상 엠아르오디펜스 대표가 참석해 기관 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을 통해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2단계 사업 부지에 연구 기관과 AI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고성능 GPU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관·산·학·연 협력 AI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앞으로 조성될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학습하기 위한 GPU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AI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전력 수요를 최소화한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한남대학교는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용해 연구-데이터-GPU-교육-산업이 한곳에서 순환하는 완결형 AX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거점센터가 대전의 우수한 R&D 역량과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 되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고성능 AI GPU 거점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AI 스타트업 성장 촉진, 지역 산업의 AI 전환 가속화,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선정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가 '2025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을 선정, 발표했다.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뤄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2월 3일 열리는 '한남의 날 행사'에서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각각 200만 원의 상금과 금배지를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 ▲ 정치분야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영어영문학과)
- ▲ 사회분야 윤성원 학제신학대학원 증경회장(경제학과)
- ▲ 행정분야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행정학과)
- ▲ 언론분야 신석우 대전CBS보도제작국장(언론홍보광고학과)
- ▲ 해외분야 김희연 한인서로돕기두레센터 대표(경제학과) 등이다.



① 정치분야 최충규 대덕구청장



정치분야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민선 8기 대덕구청장으로 재임하며 오랜 기간 정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조차장역 개발, 연축혁신지구 도시개발,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신성장 도시기반을 마련해 왔다.

② 사회분야 윤성원 회장

사회분야 윤성원 회장은 한남대 학제신학대학원 교회지도자 과정을 통해 증경 회장으로 활동하며 매년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 전통을 세워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윤 회장은 대전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 활동을 해왔으며, 소상공인 연합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기부로 나눔을 실천해 왔다.



③ 행정분야 이오숙 소방본부장



행정분야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36년 기간 동안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해왔다. 대한민국 소방역사 최초의 여성소방감 이자 전북소방본부장을 역임하며 한남대 위상을 높여온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3년여 기간 동안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 업무 총괄관리, 대응 백서 발간, 감염병 관리지침 제정 등을 통해 소방행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④ 언론분야 신석우 보도국장

언론분야 신석우 보도국장은 2001년 언론사 입사 이후 25년간 취재기자로 활동하며 현재 대전CBS 대전지역본부 보도제작국장으로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 편성을 총괄하고 있다. 지역사회 고발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2008년 도시개발 피해를 진단한 <철거민, 그들도 우리의 이웃> 보도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영예로운 상을 10 차례 수상했다.



⑤ 해외분야 김희연 대표



해외분야 김희연 대표는 한남대 북미주 총회가 창립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20여 년간 숙원사업이었던 북미주동문장학회 초대 장학위원장으로 북미주 동문 자녀 및 모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공헌해 왔다. 시카고 드림교회를 창립해 20년간 담임목사로 동포사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보여왔으며, 은퇴 후에는 한인서로돕기두레센터 봉사단체를 맡아 운영하면서 한남인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정혜신 명예교수가 쏘아 올린 ‘작은 꿈’



정혜신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7월 명예퇴직 당시, 대학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했다.

유명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초청

한남대 중앙도서관은 지난 5월 유명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개최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궤도’ 특강에는 지역 주민과 재학생 등 800여 명의 학생들이 운집했다.

궤도는 ‘안될 과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학기술분야 인플루언서로 특강에서 ‘콘텐츠,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궤도는 특강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술 작품으로 이어지고, 예술과 과학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12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궤도는 지난 2021년~2023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진행하고,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천문학과 인공지능, 최신 기술 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교수님의 발전기금 덕분에 저명한 강사분들의 특강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남대 생명시스템과학과 정혜신 명예교수가 기부한 중앙도서관 지정기탁 발전기금이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정 교수가 지정 기탁한 도서관 발전기금을 통해 한남대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정 교수는 지난 2020년 7월 명예퇴직 당시에도 대학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대학생들이 양질의 책을 많이 읽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1억원을 도서관에 기탁했다. 발전기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된 인문학 유명인사들을 초청하는 특강을 진행 중이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초청 특강

한남대는 지난 9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지역 주민, 유학생, 재학생 등이 대거 참석했다. 장동선 박사는 ‘타고난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장동선 박사는 궁금한뇌연구소 대표이며 뇌과학자이자 유튜버, 과학커뮤니케이터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울지마톤즈’ 구수환 감독 특강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톤즈’ 구수환 감독을 초청해 ‘이태석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했다. 지난 11월 한남대 중앙도서관은 구수환 감독을 초청해 ‘세계가 주목한 이태석 리더십:언론이 기록한 헌신, 시대가 기억한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구수환 감독은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에서 의료봉사와 선교를 펼치던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린 ‘울지마톤즈’를 제작·발표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구 감독은 10년간 이태석 재단과의 인연을 이어왔고, 이태석 신부가 봉사했던 남수단 지역의 아이들을 수소문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한 ‘부활(2020)’을 개봉했다. 구 감독은 오랜 기간 KBS 추적60분 PD로 시청자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수십 여편의 다큐멘터리 감독을 거쳐 현재 (사)이태석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교수의 발전기금은 저명 강사 초청을 통한 특강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남대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교수가 기탁한 기금으로 한남대 중앙도서관은 인문학도서 1,100여 권을 구입해 ‘인문학, 일상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도서관 1층라운지에 전시·대여 하고 있다. 정혜신 명예교수는 미국 퍼듀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1995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해 2020년 명예퇴직 전까지 25년간 재직했으며, 생물 의약품이 인체 내에서 오래 유지 되는 지속형 기술 연구를 오랜 시간 해왔다. 정 교수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대표 주자인 (주)알테오젠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 자리를 맡은 바 있으며, (주)알테오젠 박순재 대표이사의 부인이다.



20년간 이어온 아버지의 사랑, ‘故김희진 장학금’ 20명에게 전달



김병순 대표

지난 2005년 한남대 일문과 4학년이었던 김희진 학생은 ‘루푸스’라는 희귀병으로 젊은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 20년이 지났지만, 김희진 학생의 아버지인 (주)나노하이테크 김병순 대표와 한남대의 인연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5일 김병순 대표는 한남대를 방문해 20년 전 고인이 된 딸을 기리며 이승철 총장에게 20주년 기념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가 전달한 장학금은 100만 원씩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20년 전 김대표가 한남대에 발전기금을 기탁을 시작한 이후 누적 장학금이 1억 4,200만 원에 이른다. 한남대는 1억 원 이상의 기부자를 예우하는 아너스클럽 명예의 전당을 마련했으며, 김병순 대표도 아너스클럽에 포함됐다.

꽃다운 나이에 희귀병으로 생을 마감한 딸의 모교와 아버지 김병순씨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딸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금을 냈던 일문과 선배들에게 아버지인 김 회장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한 것이 첫 인연이었다.

김 대표는 “희진이와 같은 어린 친구들이 십시일반 조의금을 모아온 모습이 큰 감동이었다. 희진이를 기억하고 기리는 동료, 후배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첫 인연은 신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매년 이어졌고,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매년 기탁한 장학금은 딸아이의 후배인 일문과 학생 10~20여 명에게 전달됐다.



김 대표는 장학금 기탁뿐 아니라 일어일문학과와 각종 행사와 학술제, 홈커밍데이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그리운 딸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극공연 및 학술제에 참석해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지난 12월 8일 열린 한남대 일어일문학과 창설 50주년 홈커밍데이에 참석해 50주년을 축하했다.

김 대표는 “벌써 딸 아이가 하늘로 떠난지 20년이 됐다. 딸과의 신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딸의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시는 김 대표님의 선행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자녀를 잃지 않은 아픈 상처를 고귀하게 승화시켜 후학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해주시는 김 대표님의 마음이 우리 대학에 크게 울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 김병순 대표 장학금 전달
2. 장학금 전달(20주년)
3. 김희진 장학금 전달
4. 한남대 일어일문학과 창설 50주년 홈커밍데이행사



제31회 한남인문문화상에 한국외항선교회 선정

제31회 한남인문문화상 수상자로 한국교회의 세계 복음화에 기여해 온 ‘(사)한국외항선교회’가 선정됐다.

한남대 인문학술원(원장 조용훈)은 지난 10월 15일 오전 9시 정성균선교관에서 제31회 한남인문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남대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곽충환 이사장과 이승철 총장은 (사)한국외항선교회 상임회장 전철한 목사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1973년 인천항이 국제항으로 활기를 띠면서 많은 외항선이 입항(28개국, 약 21,000명)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뜻을 모은 몇몇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선교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 다음 해 경인 지역 목사, 장로, 권사 등 성도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 이후 50여 년간 외항선원 선교사역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이주민 선교로 사역 영역을 넓혀 해외 유학생과 신학생, 귀국한 이주민 성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훈련과 교회 증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13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 후원 관리하고 있다.

한국외항선교회 상임회장인 전철한 목사는 “한남인문문화상에 보답하기 위해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국내 신학대학 외국인 신학생들을 지도하며, 국내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히 해외 파송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인문문화상은 한남대 설립 원장과 초대 총장을 역임한 인돈(William A. Linton) 선교사의 창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됐으며, 인문학술원이 매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선교, 교육, 사회봉사에 크게 공헌한 인물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국외항선교회는 한국교회의 교파를 초월한 선교 기관으로 인천을 비롯한 8개 지역 항구에 입항하는 외항선원, 제3세계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됐다. 외항선교회는 창립총회 이후 부산, 포항,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 지부를 세우면서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산학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학생, 후배 위해 수상상금 ‘기탁’

“한남대 후배들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한남대 ‘한세미’ (팀원 황소희, 장수성, 조재영, 지도교수 김운중) 팀이 후배들을 위해 수상 상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한세미 팀’에게 장관상 수상 업적을 인정해 총장상을 수여했으며, 학생들은 장관상 수상 상금 3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이승철 총장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에 출전했으며, (주)엠에스머트리얼즈

기업과 협업을 통해 반도체 CMP 슬러리를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로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남대 학생들과 (주)엠에스머트리얼즈는 기존의 반도체 CMP 슬러리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했으며, 2종의 신규 분산제를 설계하고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국산화 성공으로 학계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성과를 바탕으로 한세미 팀은 기업과 함께 국내 특허 5건, 삼국특허(미국, 유럽, 일본) 2건을 출원했다.

한세미의 황소희 학생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수 팀으로 선정돼 우수사례 발표를 했고, 대학의 반도체 연구 역량을 학계와 산업계에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수상”이라며 “적은 금액의 장학금이지만 후배들이 한남대의 반도체 분야 진출을 이끄는 데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한남대에는 ‘봉사’를 실천하는 특별한 조직이 있다. 학생과 직원, 교수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회봉사 인성센터’가 주인공이다. 사회봉사활동의 관리, 운영을 통해 학생은 물론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구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목실 소속의 사회봉사인성센터는 한남대의 창학정신인 ‘봉사’를 학생들이 실천하고 점점 잊혀져가는 사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뜻깊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밝힌 ‘사회봉사 인성센터’

지난 9월 사회봉사인성센터는 전북 익산시와 전주시 일원을 찾아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과 교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익산시에 위치한 (주)하림 본사를 견학했으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업 문화를 현장에서 경험했다. 이어 한남대 초대 총장 인돈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전주로 이동해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을 방문했다. 인돈 선교사가 교장을 지냈던 전주신흥고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해 강제 휴교를 당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천을 통해 한남대의 창학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인성플러스활동’의 일환이다.

2025년 2학기 ‘사제동행’에는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외국인 재학생들도 참여해 다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할 적응에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봉사인성센터는 앞으로 유학생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1월에는 교직원과 교수, 학생들 200여 명이 참여해 쓰레기를 줍는 ‘사제동행 플로깅 기부대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공강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대학 캠퍼스와 인근 상가를 걸으며 소그룹을 이루어 쓰레기를 주우며 봉사 활동을 벌였다. 사회봉사인성센터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인식개선 설문 캠페인도 진행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위한 취지다.



1. (주)하림본사 견학
2. 전주 신흥고등학교 현장학습
3. 교내 플로깅 활동
4. 플로깅 기부대회 나눔행사
- 5·6. 감기에방 수제 레몬청 만들기

센터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화재예방 소화물품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등 300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도 마련해 대덕구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지난 12월 1일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인 ‘한남오이코노모스’를 운영해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실천했다. ‘오이코노모스’는 헬라어로 ‘선한 청지기’를 의미하며 교양교과목(기독교 봉사활동의 이해와 실제)과 연계해 교내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11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총 3회에 걸쳐 양말목 안마봉, 낙상방지 무드 등, 감기에방 수제 레몬청 등 기부 물품을 직접 제작했다.

이번 학기에는 참여 대상을 교과목 수강생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교직원과 학생, 외국인 유학생까지 참여해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제작 과정에서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물품들은 대덕구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으며, 관내 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남대사회봉사인성센터 관계자는 “이번 유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 교직원까지 참여해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앞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